

# 濟州道 H里 住民의 契集團 參與와 社會的 紐帶

김 석 준\*

## 目 次

- |                              |                   |
|------------------------------|-------------------|
| I. 研究의 背景과 目的                | IV. 調査對象 地域 概觀    |
| II. 研究의 範圍                   | 1. 調査對象 마을의 主要 特徵 |
| III. 調査 및 分析 方法              | 2.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
| 1. 契集團 參與도와 社會的 紐帶<br>水準의 測定 | V. 調査結果의 分析       |
| 2. 資料의 性格과 調査進行 過程           | VI. 結 論           |

### I. 研究의 背景과 目的

무엇인가 공동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같이하는 이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공동관심의 추구는 곧잘 契의 형식을 통한 집단형성으로 나타난다.

계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자생집단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떠한 이해 또는 諸利害群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하나의 집단 즉 기능집단(association)의 일종”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崔在錫 1969: 592), 그 실제적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다(金三守 1964; 崔在錫 1969; 김필동 1985).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를 구성하게 되는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表출적(expressive)인 것과 도구적(instrumental)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범주에는 친목과 인간관계의 유지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계가 포함되고, 후자는 殖利나 영리, 또는 공익을 위한 계를 포함 한다고 본다(金錫俊 1985, 1986).

그런데, 농촌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계나 다 친목적(表출적) 성격을 지닌다 하겠지만(伊藤亞人 1982), 최근에는 농촌계 역시 농촌사회의 구조변동과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도구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반면, 주민들의 결속이나 유대강화를 위한 친목중심계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보고가 있다(姜昌圭 1977).

\* 社會科學大學 助教授

이를 받아 들인다면, 표출적 성격이 강조된 농촌계의 수적 증가는 부락내에 계의 교차증식을 가져와 인간관계의 망을 서로 겹치게 만들어서, 마을의 여러가지 — 특히 문중세력간의 — 사회적 균열을 억제하는 안전판이 되어 촌락사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견 타당할 지 모른다 (梁會水 1967; 李萬甲 1980; Shima, Mutsuhiko 1979; 伊藤亞人 1982). 하지만, 계의 구성 자체가 경제적 계층성과 사회적 친소관계의 복합적 영향에 의한 것이어서 마을내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사회적 격리의 한 機制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무시하기 힘들다 (崔恩英 1984).

따라서, 농촌사회내의 인간관계 형성과 관련지어 계의 역할규정을 하고자 할 때, 위의 대비되는 두 견해로 미루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충분한 관심사가 될 만하다. 본 연구는 이런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 H리 주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사이에 드러나는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오히려 연구자가 이전에 검증한 바 있는 기왕의 연구결과를 대상과 분석단위를 달리하여 부분적으로 재고찰한다는 데 있다. 기왕의 연구란 제주도 중간간 유희토지의 개발에 관한 연구(夫萬根 外 1986)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serendipity)’ 관계에(Merton 1968) 이끌려 시도된 “제주도 중상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1986)라는 논문을 말한다.<sup>1)</sup> 이 연구의 결과는 위의 대조적인 두 견해 중 후자의 것을 지지하는 것이었지만, 원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자료 속에서 본 주제와 관련되는 것만을 임의 추출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적지않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와 접근방법을 통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하겠거니와, 본 연구는 이 주제에 대한 부분적 고찰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연구자가 계획하고 있는 이 주제에 관한 본격적인 후속 연구의<sup>2)</sup> 사전 점검이라는 목적을 더 중시하고자 한다.

## II. 研究의 範圍

본 연구가 연구자에 의한 기왕의 연구(“연구I”)를 재고찰한다는 데서 내용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 보완적이어야 하겠지만, 연구의 주안점은 차후의 연구를 위해 분석방법의 정교화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변수들을 검토하는 데 두어 진다. 물론 앞서 제시한 두 견해의 경험적 타당성을 따지는 작업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때문에, 앞의 두 견해 중 전자 즉, 伊藤亞人이 대표하는 견해를 통합 가설(integration hypothesis), 崔恩英이 주장하는 후자의 견해를 격리 가설(segregation hypothesis)이라 이름짓는다면<sup>3)</sup>, 이 두 가설중 어느 쪽을 더 지지할 수 있겠는 지를 살피는 것도 본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I’의 경우와 달리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마을간 비교가 아니라 특정 마을의 주민들이

- 
- 1) 이하의 논의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논문을 ‘연구I’로 약칭하겠다.
  - 2) 계획하고 있는 후속 연구란 1986년도 문교부 자유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본 연구자가 수행할 예정인 “제주도 농촌주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라는 연구를 말한다.
  - 3) 이 두 견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해설은 ‘연구I’을 참고바람.

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가설이 함축하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비교 검증한다기 보다 한 마을내에서 이 가설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부분적으로 고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점 본 연구가 지닌 제약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 III. 調査 및 分析 方法

#### 1. 契集團 參與度와 社會的 紐帶 水準의 測定

계집단 참여도는 '연구I'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단히 언급하겠다. 계집단 참여도는 응답자 개인이 직접 모임에 참석하는 계의 숫자를 측정할 수 있게 작성된 척도에 의존해서 산출하였다. 이 척도는 계의 성원자격(membership)이 가구주인지 개별 가족성원인지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서, 응답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구주가 참여하는 계집단의 수를 의미하는지 당사자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지 혼돈스러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계의 성원자격에 관계없이 실제로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을 위주로 측정하므로써 정확을 기하도록 만들어졌다.

사회적 유대 수준의 측정은 Fessler(1952)가 제시한 '지역사회유대지수(Community Solidarity Index: CSI)'를 원용해서 '연구I'에서 작성했던 '지역사회평가척도'를 새로운 자료로부터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한 후 재구성한 것에 의존했다. 원래 '연구I'의 '지역사회 평가척도'는 9개 문항, 4점 척도였는데 이를 다른 기법을 동원해서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한 것이다.

이 때 요인분석은 주요인분석(principal-components analysis)의 방법에 의해 非回轉(norotation)시켜 수행했으며, 그 결과 세 개의 요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척도의 구성에는 이 세 요인 중에 제1요인(eigenvalue, 2.9485)에서 要因負荷值(factor loading)가 0.6이상인 문항 5개만을 이용하였다.(〈표1〉참조). 즉, 분석에 쓰게 될 척도는 다음의 수식에 의해 계산된 이 문항들의 要因點數(factor score)인 것이다(Rummel 1967; Kim 1975).

〈표 1〉 선정된 문항의 요인부하치와 요인점수 계수

문	항	요 인 부 하 치	요 인 점 수 계 수
1		.68727	.23306
2		.68048	.23075
3		.71464	.24234
4		.65068	.22065
5		.65818	.22319

$$F = a_1Z_1 + a_2Z_2 + a_3Z_3 + \dots + a_nZ_n$$

F: 요인점수

a: 각 변수(문항)의 要因點數係數(factor score coefficient)

Z:  $\frac{\text{각 변수(문항)의 점수} - \text{각 변수(문항)의 평균}}{\text{각 변수(문항)의 표준편차}}$

이렇게 해서 재구성된 '지역사회평가척도'는 최저 -2.25에서 최고 1.10까지의 점수분포를 보였고, 평균은 0.0이었다.

## 2. 資料의 性格과 調査進行 過程

본 연구의 자료는 제주대학교 새마을연구소가 “마을단위 종합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미발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것 가운데 관련된 부분만을 일괄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I'과 거의 마찬가지로 제한된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연구소의 조사는 1986년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도내 8개 마을을 예비답사한 후 北濟州郡 舊左邑 H리를 본조사 대상지로 삼았다.

본조사는 면접원들을 동원하여 1986년 10월 11일 부터 30일 까지 실시했는데, 본조사의 도구는 해당마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진 질문지가 동원됐고, 현지에서의 수차에 걸친 면접도 병행했다. 본조사의 실질적 대상은 가구주로 한정했으나 가구주 부재시에는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가구원을 선택했다. 본조사 결과 수집된 질문지는 총 110매로 이를 편집한 후 분석가능한 질문지로 105매를 확정시켰다.

## IV. 調査對象 地域 概觀

### 1. 調査對象 마을의 主要 特徵

H리는 단일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로서, 1985년 10월 1일 현재 가구수 327호, 인구 1,413 명이며, 농가는 308호, 비농가는 19호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0.8ha이다.

H리의 토양은 砂質土가 대부분이라서 주로 마늘을 재배하고, 보리, 유채, 참깨, 콩 등도 재배하는데, 마을 자체가 해안가이면서 마을 해안선이 인근의 타마을에 비해 길기 때문에 풍부한 어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수산업도 비교적 활발하다. 그래서 이 마을의 산업은 半農半漁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H리 역시 '연구I'의 대상마을 M동, G동처럼 공동목장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목장지 약38만평 중 18만평이 리공동소유이고, 20만평은 공유로 되어있다. 일종의 조합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며,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쪽은 조합원 전체가 방목지로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조합원 중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한다. 하지만 주민공동조직으로서 목장조합의 마을에 대한 영향력은 축산이 부업에 지나지 않은 탓에 그리 큰 편은 아닌 것 같았다.

수산업과 관련된 마을조직으로는 漁村契가 있다(이는 '연구I'의 마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주민 공동조직임). 어촌계는 제1종 공동어장에서의 해산물 채취와 관리 및 유통을 주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단체로서 남자 계원 18명과 여자계원 28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의 해녀들은 모두 이 어촌계의 산하조직이라 할 수 있는 해녀회에 가입하고 있다. 수산업이 활발한 H리에서는 어촌계가 마을의 중요조직의 위치에 있고 그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상당하다고 한다.

요컨대, H리의 주요 특징은 반농반어의 해안마을로서 어촌계와 같은 수산관계 주민협동조직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 2. 調查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조사대상자들의 출생지와 주성장지는 H리에서 출생, 성장한 사람이 각각 91.9%(91명), 90.9%(90명)로 마을자체가 거의 토박이들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해준다(H리 이외 지역 출생, 성장은 각각 8.8%, 9.1%). 주민과의 현지면접과정에서도 마을사람들이 외지인에 대해 비교적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와같은 주민구성은 그런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sup>4)</sup>

응답자들의 마을내 평균거주년수는 40.8년이고, 가구당 동거가족원수의 평균은 4.719명이며,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74.5%(73명), 여자는 25.5%(25명)이다. 연령별로 본 응답자의 분포는 50대가 35.4%(35명)로 가장 많고, 다음이 40대(31.3%), 30대(16.2%), 20대(9.1%), 60세이상(8.1%)의 순서로 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결혼관계를 살펴보면, 미혼이 5.1%(5명),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경우가 82.8%(82명), 별거, 이혼 또는 사별한 상태의 응답자가 12.1%(12명)이다.

다음에 응답자의 학력은 무학 또는 한글해독이 11.1%(11명)이고 국민학교 졸업이하가 33.3%(33명)로서 이 둘을 합치면 44.4%(44명)나 되어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다. 그 외 중학교 졸업자는 34.3%(34명), 고졸자는 18.2%(18명), 대학교 재학 이상은 3.0%(3명)이다.

조사된 가구의 '85년도 총수입은 전체 조사가구의 41.4%(41호)가 200만원 이하에 머물고 300만원 까지를 합하면 63.6%(63호)가 되어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조사가구의 '85년도 평균 총수입을 산출했더니 약 305만 5천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501만원 이상도 15.2%(15호)에 지나지 않아 '연구I'의 3개 대상마을들보다 적었다.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한 계층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상층이 4.0%(4명)로 극히 소수이며, 중간층은 53.0%(53명), 하층은 43.0%(43명)로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층 또는 하층으로 평가하였다.

4) 그러나 이러한 배타적 경향은 제주도가 고립과 개방의 이중적 島嶼性을 지니는 데서 비롯하는 것으로 도내의 농촌마을 주민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지 H리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庾喆仁(1984)을 참고할 것.

## V. 調查結果의 分析

본 연구에서 계집단 참여도는 계집단참여척도를 통해, 사회적 유대수준은 요인분석에 의해 재구성한 '지역사회평가척도'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했다.

먼저 전체응답자들의 계집단 참여도는 평균 1.860개 였는데, 이것과 지역사회평가수준은  $r = 0.2053$  ( $p < .05$ )이라는 正的 相關關係를 나타내 '연구I'의 결과 ( $r = -0.1663$ ,  $p < .01$ )와 상반된다. 즉, 계집단 참여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평가 곧 사회적 유대수준도 높은 것이다. 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표2>를 작성했더니 그 결과는 마찬가지 였다.

<표 2>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수준

계집단참여도	없 음	1 개	2 개 이상	통 계 치
지역사회평가척도 평균	-0.33 (21)	-0.24 (27)	0.26 (52)	F = 5.953 df. = 2 P < .005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응답자 수

<표2>에 의하면, 계집단에 하나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평가수준이 -0.33으로 가장 낮고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갈수록 평가수준은 -0.24, 0.26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일단 '격리가설'보다 伊藤이 대표하는 '통합가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고, '연구I'의 결론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연구I'과는 달리 특정 마을의 주민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의 <표3>과 <표4>를 더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3>을 보면, 선정된 변수들 가운데 동거가족원수, '85년도의 총수입과 수산업 소득, 같은 해의 피복비와 식비 지출, 그리고 주관적 계층평가와 '마을공동사업에 의해 혜택을 본 정도' 등의 변수가 계집단 참여도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4>에 따르면 지역사회평가수준은 이 변수들 중에 '마을 공동사업에 의해 혜택을 본 정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만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변수들과는 무의미한 관계에 있다. 또, 계집단 참여도와는 통계학적으로 무관하다고 판명된 다른 두 개의 변수, 즉 '마을공동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공동사업참여에 대한 태도'가 지역사회평가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다.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수준이 상호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과 연관된 변수는 하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각각 서로 다른 것이다(여기서는 직접 제시하지는 않지만, 분석대상이 되는 모든 변수들을 교차통제시켜 반복해서 二元變量分析(two 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결과에서도 별다른 추론의 여지는 없었음). 그리고, 지역사회평가수준과 관계가 있는 변수들은 다 마을의 공동사업과 연결된 것들이어서 공동사업의 요체인 협동과 지역사회평가수준이 측정하는 사회적 유대수준이 서로 연관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한편, 계집단 참여도와 관계 있는 변수들은 거의 모두가

< 표 3 >

계집단참여도와 관련변수

관련변수명	구 분	계 집 단 참여 도	통 계 치
H리 거주기간	24년 이하	1.59개(17명)	F = 2.705 df. = 2 N. S.
	25~49	2.22(51)	
	50년 이상	1.44(32)	
동거가족원수	3명 이하	1.13(24)	F = 4.579 df. = 2 P < . 05
	4~6	2.00(57)	
	7명 이상	2.60(15)	
'85년도 가구 총 수 입	150만 이하	1.14(28)	F = 4.397 df. = 2 P < . 05
	151~300	2.00(34)	
	301만 이상	2.28(36)	
'85년도 가구 수 산업 소득	50만 이하	1.54(57)	F = 3.178 df. = 2 P < . 05
	41~100	2.11(28)	
	101만 이상	2.60(15)	
'85년도 가구 영 농 비 지 출	40만 이하	1.39(36)	F = 4.589 df. = 2 P < . 05
	41~100	1.89(47)	
	101만 이상	2.76(17)	
'85년도 가구 식 비 지 출	50만 이하	1.28(39)	F = 4.451 df. = 2 P < . 05
	51~100	2.23(44)	
	101만 이상	2.24(17)	
주관적 계층 평 가	하	1.35(43)	F = 8.244 df. = 1 P < . 005
	중·상	2.25(57)	
마을공동사업 평 가	잘 안된다	1.67(24)	F = 0.457 df. = 1 N. S.
	잘 된다	1.92(76)	
공동사업 혜택	없거나 손해	1.17(18)	F = 4.247 df. = 1 P < . 05
	있었다	2.01(82)	
앞으로의 공동사업 참여	소극적 *	1.54(24)	F = 1.250 df. = 1 N. S.
	적극적	1.96(76)	

\* 소극적 참여에는 정부가 지원하거나 남아하면 참여하겠다는 관심없다가 포함됨.

<표 4>

지역사회평가수준과 관련변수

관련변수명	구 분	지역사회평가	통 계 치
H리 거주기간	24년 이하	-0.10(17명)	F = 0.202 df. = 2 N. S.
	25~49	0.04(51)	
	50년 이상	-0.02(32)	
동거가족원수	3명 이하	0.00(24)	F = 0.350 df. = 2 N. S.
	4~6	0.04(57)	
	7명 이상	-0.16(15)	
'85년도 가구 총 수 입	150만 이하	0.03(28)	F = 0.076 df. = 2 N. S.
	151~300	0.04(34)	
	301만 이상	-0.03(36)	
'85년도 가구 수산업 소득	50만 이하	0.03(57)	F = 0.727 df. = 2 N. S.
	51~100	-0.14(28)	
	101만 이상	0.15(15)	
'85년도 가구 영농비 지출	40만 이하	-0.01(36)	F = 0.672 df. = 2 N. S.
	41~100	-0.07(47)	
	101만 이상	0.20(17)	
'85년도 가구 식비 지출	50만 이하	-0.12(39)	F = 0.940 df. = 2 N. S.
	51~100	0.12(44)	
	101만 이상	-0.02(17)	
주관적 계층 평 가	하	-0.02(43)	F = 0.039 df. = 1 N. S.
	중·상	0.01(57)	
마을공동사업 평 가	잘 안된다	-0.29(24)	F = 4.214 df. = 1 P < .05
	잘 된다	0.09(76)	
공동사업 혜택	없거나 손해	-0.54(18)	F = 10.760 df. = 1 P < .001
	있었다	0.12(82)	
앞으로의 공동사업참여	소극적*	-0.61(24)	F = 21.475 df. = 1 P < .000
	적극적	0.19(76)	

\* 소극적 참여에는 정부가 지원하거나 남이 하면 참여하겠다고와 관심없다가 포함됨.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계층적으로 구분짓게 해주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결과는, 계집단 참여도에 한정시킬 경우, '격리가설'을 지지했던 '연구'에서 추출한 既成集團과 限界集團의 특징(金錫俊 1986:363—364)과 두 집단간의 경계를 다시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 동거가족원 수가 많아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2) (동거가족수가 많은 만큼) 피복비와 식비를 다른 가구에 비해 많이 지출하든지, (3) 마을의 주요 산업의 하나인 수산업에서 소득을 많이 올리거나, (4) 총수입이 많든지, 또는(그래서) (5) 주관적 계층평가에 있어서도 중층 혹은 상층에 소속하여 마을의 대소사에 영향력 행사가 쉽든지, (6)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사업의 혜택도 많이 보든지 하게 되면 계집단 참여도는 높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낮은 계집단 참여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표2>를 보고 추리한 것처럼 단순히 '통합가설'이 지지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고 '격리가설'이 그대로 지지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계집단참여 자체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주민들간의 경계선(기성—한계집단의 구분)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역사회평가수준 즉, 사회적 유대수준이 계집단 참여도와 정적 상관관계에 있는 까닭에, 적어도 계집단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유대의 정도도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마을이 아니라 특정 마을의 주민들이라서 계집단 참여도와 마을전체의 사회적 유대수준의 관계까지 정적 상관관계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큰 무리이고 이 문제는 여전히 별개의 미확정인 것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가설이 한 마을의 주민들만을 가지고 고찰할 때 어떻게 적용, 또는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대안적 추론을 해보는 것이다.

사실상 두 가설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데 궁극적으로는 '격리가설'로 통합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즉, 특정 마을에서의 계집단 참여는 주민들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경계선을 반영하지만('격리가설'의 수용), 계집단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유대수준이 높다(마을 전체의 사회적 유대수준을 직접 지칭하지 못 한다는 점에서 '통합가설'의 부분적 수용). 그런데, 계집단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볼 때 이른바 기성집단에 속하는 주민들로서 이들의 사회적 유대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들끼리의 결속도가 높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렇지 못한 한계집단의 주민들은 그들로부터 격리됨을 뜻한다. 결국 한 마을내에서의 '통합가설'의 의미를 이런 방식으로 적용한다면 '보완된 격리가설'을 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마을이 아니어서 가능한 것인지 모르며, 만일 분석단위를 높여 마을간 비교를 한다면 '통합가설'이 지닌 가치를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주민들의 계집단 참여도가 높은 마을일수록 지역사회평가척도의 평균, 곧 사회적 유대수준이 높을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수준의 두개의 분석단위가 필요할 뿐더러, 脈絡的分析(contextual analysis)(Lazarsfeld et al. 1972 : 219—224)도 가해져야 제대로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 VI. 結 論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I'의 결과에 대한 부분적 고찰과 차후의 본격적 연구를 위해 분석방법을 사전점검한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완된 격리가설'을 지지할 수 있다는 추론을 하므로써 '연구I'의 결과를 재차 확인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단위가 '연구I'의 그것과 다른 때문이 아닌가 했다. 이를 받아 들인다면, 차후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분석단위의 문제를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덧붙여서, 논의과정에서 군데군데 지적한 본 연구의 제약과 한계들도, 연구자가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들을 포함해서, 계획중인 차후의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함을 밝히고 논의를 끝맺는다.

## 〈參 考 文 獻〉

- 姜昌奎, (1985) “農村發展과 農村契의 變貌에 關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4 : 5—28.
- 金三守, (1964) 「韓國社會經濟史研究」 서울 : 博英社
- 金錫俊, (1985) 自發的 結社體 理論을 韓國社會에 適用하기 위한 豫備的 試圖 :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的 提案, 「社會發展研究」 1 : 323—343.
- 1986, “제주도 중산간부락민의 契集團 참여와 사회적 유대”, 「濟州大學校 論文集」 22 : 347—366.
- 김필동, (1985) “契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 : ‘契’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韓國社會學研究」 8 : 63—98.
- 夫萬根(外), (1986) “濟州道 中山間 遊休土地의 開發·活用 方向”, 「社會發展研究」 2 : 1—170
- 梁會水, (1967) 「韓國農村的 村落構造」 高大 亞細亞問題研究所.
- 庚喆仁, (1984) “일상생활과 島嶼性 : 濟州島 文化에 대한 認知人類學的 接近”, 「濟州島研究」 1 : 119—144.
- 李萬甲, (1980) “傳統的 協同과 村落社會의 發展”, 「韓國의 社會와 文化」 3 : 5—42.
- 崔恩英, (1984) “韓國農村的 社會經濟的 構造와 契 : 경기도 여주군 한 마을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崔在錫, (1969) “契集團研究의 成果와 課題 : 그 集團의 性格과 機能을 中心으로”, 「金載元 博士 回甲紀念論叢」 pp. 583—599. 서울 : 乙酉文化社.
- 伊藤亞人, (1982) “契조직에 보이는 ‘親한사이’의 분석”, 「韓國社會와 宗教 : 일본인에 의한 사회인류학적 연구」 崔吉城 編譯 pp.31—61. 서울 : 亞細亞文化社.
- Fessler, D. R., (1952)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Community Solidarity”, *Rural Sociology* 17 : 144—152.
- Kim, Jae-On(1975) “Factor Analysis”, in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Norman H. Nie et al. eds., pp. 659—692. New York : McGraw-Hill, Inc.
- Lazarsfeld, P. F. et al, eds. (1972) *Continuities in the Language of Social Research*, New York : The Free Press.
- Merton, R.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 ed. New York : The Free Press of Glencoe.
- Rummel, R. J. (1967) “Understanding Factor Analysis”, *Conflict Resolution* 11 : 444—480.
- Shima, Mutsuhiko, (1979) *Kinship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a Korean Vill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